



‘보성율포솔밭해수욕장’

매력 속으로 뚱뚱 빠지다

2018년 전국 5대 우수 해수욕장 선정



보성군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전국의 많은 피서객들이 2018년 전국 5대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된 유포솔밭해수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례군 청소년 상담전화 친절도 전남 센터중 1위

구례군이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청소년 전용 상담전화 1388 친절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 전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국 228 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친절도 조사 평가는 전국적으로 불시에 동시에 별별로 진행해 최초의 수신상태 및 상담진행, 상담조치 및 적극성, 끝맺음 인사 등 10가지 항목을 5차례에 걸쳐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10월 개소 이후 상담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번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전남도 22개 시·군 센터 중 1위를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영광군, 폭염 대응 맞춤형 살수차 운영

폭염 대책 합동 T/F팀 중심 다양한 대책 추진



영광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특별 빌령에 따라 무더위를 식히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민의 폭염 노출 가능성이 높은 낮 최고온 시간대(낮 12시 ~오후 4시)에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1일 2대로 턴레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살수 작업은 도로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해 대기질 개선에

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살수에 의해 달궈진 도로 온도가 낮아지고 시작적으로 시원한 장면을 연출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살수차 운영 외에도 폭

염 대책 합동 T/F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열사병과 탈진 등 운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폭염특보 발령 시 이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군민 스스로 폭염 행동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버섯도 최첨단 ICT로 재배해요”

‘느티리버섯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시범사업 후 본격 보급



장성군이 ICT(정보통신 기술)로 버섯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을 농가에 본격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장성군은 적은 노동력으로 고품질 버섯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느티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장성군이 실시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느티리버섯 균상재배시에 최첨단 ICT를 적용하는 것이다.

온도·습도 등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하면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장성군은 밝혔다.

장성군이 이 사업에 투입하는 주요 기술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느티리버섯 균상재배

내부 공기 강제 대류 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습도의 균일성을 높이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부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기술이다. 냉난방, 수분, 환기 등을 최적화해 버섯 재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장성군은 진원면 느티리버섯작목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는 11월 평가회를 거쳐 지역농가에 해당 기술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 첨단 ICT를 도입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 농식품 분야 트렌드에 발맞춘 ICT를 느티리버섯 보급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흥군, 우주천문과학관 여름 휴가철 특별운영

고흥군 우주천문과학관은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7.28~8.1) 4시간 조기 개장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제 시작일인 28일 새벽 개기월식이 진행됨에 따라, 27일 22:00까지 운영 후 28일 월식이 진행되는 이른 새벽(08:00 ~ 05:30) 특별 개장한다.

8월 17일(음력 7월 7일)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 칠석을 맞아 특별 관측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계절 중 여름밤에 가장 밝은 은하수를 배경으로 우리 전통 별자리에 등장하는 견우별과 직녀

별등 관련 별자리에 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mm 반사 망원경과 드론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다. 기간 중 달이 뜨는 시기에는 관람객의 핸드폰 카메라로 직접 달을 찍어 갈 수 있도록 망원경과 장비를 추가하고 지원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별을 볼 수 없는 낮시간에는 천문과학관 2층 전시실 및 3층 전망대를 둘러봐도 좋을 것이다. 2층 전시실에는 양부일구 등 고전문기 기와 대양계제종계 및 응용현상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보형이 전시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천문과학관 앱을 다운받는다면 증강현실(AR) 체험도 할 수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삼시세끼 활영지인 득량도도 볼 수 있다.

고흥군 천문과학관 관계자에 따르면 날씨에 따라 관측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휴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할 수 있고, 관측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과(☎ 061-830-669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 부취재본부장

함평군보건소, 청소년 대상 성교육 교실 마무리



함평군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관내 16개 초·중·고 학생 1,9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성교

육 교실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교육은 청소년기 정확한

성지식 보급 및 생명준중 인식제고를 통해 바른 성문화를 정립하고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연령별 맞춤형 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기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통감한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지속 제공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상담
- 중대 사안·관계기관·전경
- 구제신청·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무료 운송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명예사직장·근로자 노동·법률지원
- 감시단속·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청탁·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